

“기무사 관련 독립수사단 구성 수사”

문 대통령, 계엄령 검토 문건에

“독립수사단, 기무사 세월호 유족 사찰의혹도 수사” 인도 현지서 보고받은 후 송영무 장관에 즉시 지시

장관 수사지휘 안받고 독자적인 수사 진행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충북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청와대 참모진의 현안점검회의를 통해 사안이 엄중하다는 것에 인식이 모아졌고, 전날 인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졌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이 현장에서 즉시 특별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인도 공식환영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숙 여사가 1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대통령궁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내부 문제와 관련해 독립수사단이 구성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때는 검찰총장 지휘권 행사 아래 민간 검찰로 구성된 독립수사단이 한 차례 꾸려진 바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군의 독립수사단은 민간검찰에서 했던 독립수사단을 준용해서 수사단이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독립수사단의 지휘·보고 체계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생각해볼 수 있는 건 일단 국방부 장관이 독립수사단 단장을 지명하게 될 테고, 그 단장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서 독립적

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누구에게도 보고를 하지 않고,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인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현지에서 지시를 내린 배경에 대해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위중함, 심각성, 폭발력을 감안해서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들이 신중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봤다”며 “그러느라 시간이 좀 걸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MB 소송비, 삼성이 대납했다”

이학수, 검찰에 자수서 “후회막급이다” 진술

이학수(62)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한 게 맞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한 사실이 10일 법원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 서증조사(채택된 증거 설명)를 통해 이 전 부회장 자수서 내용을 알렸다.

이 전 부회장은 조사를 받을 때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미국의 대형로펌 에이킨킴프에서 근무하던 김석한(번호사)은 1990년대부터 삼성 미국 내 법인 일 많이 해줘서 업무관계로 알고 내왕하던 사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김석한에게 부탁을 받고 이 전 대통령의 미국 내 법률문제 소요 비용을 삼성서 대신 납부하게 한 적이 있다”면서 “상응하는 형사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부회장은 “당시에는 회사와 (이건희) 회장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믿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후회막급이다”라고도 적었다.

검찰은 “2008년 하반기나 2009년 초에 김석한이 한국에 와서 삼성전자 고문으로 이견희 회장을 보좌하

던 이 전 부회장 사무실로 찾아왔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김석한은 직전에 청와대에 가서 이 전 대통령과 김백준 전 기획관을 만나고 왔으면서 ‘이 전 대통령 관련 미국 내 소송 등 법률조력 업무를 에이킨킴프에서 대리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을 돕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이 비용을 청와대에서 마련할 수 없으니 삼성에서 대신 부담해주면 국가적 도움도 되고 청와대도 고마워할 것’이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은 김석한이 다스 소송 비용을 구체적으로 자목해 얘기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미국의 대형로펌 에이킨킴프에서 근무하던 김석한(번호사)은 1990년대부터 삼성 미국 내 법인 일 많이 해줘서 업무관계로 알고 내왕하던 사이’라고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5월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저에게 사면대가로 삼성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충격적이고 모욕”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창올림픽 유치에 세번째 도전하기로 결정한 후 이견희 회장 사면을 강력하게 요구받고 정치적 위험이 있었지만 국익을 위해 삼성 회장이 아닌 이견희 IOC 위원인 사면을 결정한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BBK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40여원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삼성그룹에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혐의(뇌물) 등을 받고 있다. /뉴스1

“기무사 계엄령 선포 검토, 내란 예비 음모에 가까워”

평화당 천정배 의원, “검·군검찰 합동수사해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이 기무사의 계엄령 선포 검토에 대해 “국민들의 평화적인 집회를 국군의 무기를 써서라도 진압하고 정권을 다시 계속 갖자는 것은 쿠데타성의 내란 예비 음모에 가까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 의원은 9일 BBS ‘전원신의 아침저녁’에 출연해 “(기무사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지 국가 전체 운영에 관해 나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과거 군사 정권 시절에 군 쿠데타도 일삼았던 군들이 하던 짓을 그대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의 청문회 요구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청문회의 사실 규명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국정원의 세월호 참사 개입 문제까지 포함해서 국정원과 기무사를 함께 검찰과 군검찰을 합동 수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천 의원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에 법사위원장을 주면 개혁입법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그렇게 되면 20대 국회의 남은 1년 반은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천 의원은 “소수과 상임위원장 한 사람이 온 국민이 뜻을 다 무시해버리고 법안을 무산시켜버릴 수 있는



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장을 확보하자. 이것이 촛불국민혁명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입법을 성공시키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개혁입법연대가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으로는 “정치개혁의 제일 첫 번째 법안은 선거법”라며

“민심그대로선거제”, 국민의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국회 의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통해 정치도 발전되고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개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천 의원은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이 개혁입법연대를 주도적으로 나서서 만들겠다. 이런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주장인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의 개혁입법연대 참여에 관해선 “개혁입법연대에 참여하고 싶다면 그건 환영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당의 다른 의원들이 다 그 입장에 동의해 들어올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당대표 경선시 국민여론조사 반영 수용”

평화당 유성엽 의원 “당 변화 위한 해답은 내부에서 찾아야”

유성엽(민주평화당, 정읍, 고창) 의원이 10일 당의 화합과 미래를 위해 당대표 경선시 국민여론조사 반영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주평화당은 당대표 선출과정에서 여론조사 반영여부를 놓고 후보 간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하지만 유 후보 중 하나인 유성엽 의원이 여론조사 반영안에 대하여 적극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앞으로를 관련 협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된다.

유 의원은 “지금 평화당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그 해답을 다른 당이 아닌 우리당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오직 우리만이 갖고 있는 중도개혁적 노선을 명확히 하고, 지역정당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경제정책 제시를 통한 전국정당 기틀을 마련하는 등 ‘자신만의 색깔’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당의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김진성 기자

“지지를 1% 정당이, 더군다나 공지도 아닌 당직 선출하면서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이라며, 당 재건의 대의 앞에 시시비비 가리지 않고 청탁병탄(淸濁併呑)하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김진성 기자

무주 2018
수레박 물축제!

2018. 07. 27(금) - 07. 29(일)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남대천 일원

주최·주관 무주읍·무주읍발전협의회

축제일정

요일별		행사명	장소
일시	시간		
7월 27일 금요일	11:00	반디어린이 수중축구 대회	수중축구장
	16:00	무주군 동아리 공연	메인무대
	18:40	레시가드 패션쇼	
	19:00	EDM 파티	
7월 28일 토요일	20:00	영화상영	메인무대
	11:00	반디어린이 수중축구 대회	
	16:00	전국퍼포먼스댄스대회	
	18:00	식전공연	
	19:00	개막식	
7월 29일 일요일	20:00	축하공연 [홍진영]	메인무대
	20:40	불꽃놀이	
	20:45	EDM 파티	
	16:00	전국배틀댄스대회	
	20:00	영화상영	메인무대